



John Walton

Author of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 profoundly important new analysis of the meaning of Genesis."

FRANCIS S. COLLINS, author of *The Language of God*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JOHN H. WALTON

존 월튼,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1.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인 것은 아니다
2. 성경은 과학교과서일까?
3. 존재한다는 것은 작동한다는 것이다
4. 창조는 물질의 탄생이 아니다
5. 태초의 비밀, 빅뱅의 순간인가, 경영의 시작인가?
6. 혼돈과 공허는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기능의 부재다
7. 창조의 첫 사흘 – 존 월튼이 발견한 기능적 질서
8. 우주의 개업식 – 창조의 언어와 존재의 비밀
9. 신화의 끝, 사명의 시작 – 인간은 누구인가?
10. 온 우주가 성전이다!
11. 요세푸스가 목격한 성전 – 우주의 축소판
12. 창세기 1장 – 우주 성전의 탄생
13. 과학과의 전쟁을 끝내는 입당식의 비밀
14. 성경을 진짜 문자 그대로 읽는 법
15.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현대의 길들, 그리고 잃어버린 길
16. 과학의 조리법과 성경의 요리사
17. 시계 제조공을 넘어, 지탱하시는 하나님

18. 망원경이 찍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진
19. 도킨스의 지적 설계, 그 너머의 길
20. 창조는 마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21. 창조주를 만나는 곳, 우주라는 성소
22. 과학의 한계와 중립의 품격
23. 지적 설계론의 로그잼(logjam)을 푸는 8가지 원칙
24. 과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5대 선언
25. 에필로그 - 성경의 권위와 지적 정직성을 위하여]
26. 창조론 vs. 진화론, 100년의 전쟁을 끝낼 평화선언문

[독서 노트]

1.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인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아침, 저는 존 월튼(John H. Walton)의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10년의 목회 여정을 잠시 멈추고 광야에 선 지금, 이 책의 서문은 저에게 마치 “안경을 새로 맞추라”는 엄중한 권고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존 월튼은 서문에서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성경의 수신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Written *for* us vs. *to* us)

월튼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for) 쓰였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to) 직접 쓰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독자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고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21세기 서구적·과학적 안경을 쓰고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우리는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2.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일부’였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성경이 주변 신화와 비슷하다는 사실에 당혹해합니다. 하지만 월튼은 단호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문화의 일부(part of that world)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여기듯, 그들은 그 시대의 ‘공통된 세계관’을 공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과 문화적 문법을 빌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번역’하지 않고는 본문의 참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3. 신화는 고대의 ‘과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거짓말로 치부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신화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듯, 그들은 그들만의 체계로 세상

의 기원과 운영을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현대 과학의잣대로 증명하려 하거나 비판하려는 시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적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능과 목적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를 선언하는 신학적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 구도자의 단상: 안경을 벗을 때 보이는 것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의 시대, 나의 문화’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재단해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현을 해석할 수 없다”는 월튼의 일갈은, 비단 성경 읽기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숨겨진 진리를 찾으려는 구도자라면, 먼저 ‘나’라는 안경을 벗고 ‘그들(텍스트와 세상)’의 맥락으로 들어가는 겸손이 필요함을 배웁니다.

2026년의 첫 독서, 저는 이제 이 ‘잃어버린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2.

성경은 과학 교과서일까? :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제1장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 존 월튼의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제1장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 역시 한때 공대생으로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현대 과학과도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월튼은 제1장에서 우리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1. 성경을 현대 과학에 끼워 맞추는 ‘일치주의(Concordism)’의 함정

우리는 흔히 창세기의 기록을 현대의 빅뱅 이론이나 양자역학, 생물학적 발견과 연결하려 합니다. 이를 일치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월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를 특정 시대의 과학에 맞추셨다면, 그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책이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 시대 사람들에게는 구식 유물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분이기에, 계시를 특정 시점의 ‘과학 지식’에 끌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과학을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옴으로써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 하나님은 ‘눈높이 선생님’이십니다 (Cultural Accommodation)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문화를 넘어서는 ‘첨단 과학’을 가르쳐주신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고대인의 언어: 하나님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던 ‘하늘의 둠(궁창)’이나 ‘지하의 물’ 같은 개념을 그대로 빌려 쓰셨습니다.
- 이유: 하나님의 목적은 과학 강의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라는 영적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이 없던 세계

현대인은 과학적 현상(자연)과 신비한 기적(초자연)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이런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는 것도, 해가 뜨는 것도 모두 하나님 의 직접적인 활동이었습니다.
 - 따라서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건 과학적 사실이고, 저건 신 양적 고백이야”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현대인의 안경을 쓰 고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취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을 당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for us)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to us) 직접 쓰인 것은 아니다.”

이 겸손한 인정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3.

[제2장 정리] 존재한다는 것은 ‘작동’한다는 것이다 :

물질적 존재론을 넘어 기능적 존재론으로

제1장에서 우리가 ‘현대 과학의 안경’을 벗었다면, 제2장에서는 ‘고대 근동의 안경’을 쓰고 존재의 정의를 새로 내립니다. 공대생 시절 제가 가졌던 “물질이 언제 생겼나?”라는 질문에 대해, 월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제시합니다.

1. “존재(Existence)”에 대한 정의의 전환

우리는 보통 분자와 원자가 결합된 ‘물질’이 있을 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존재란 “시스템 안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 **비유**: 하드웨어만 있고 OS가 깔리지 않은 컴퓨터, 혹은 건물은 있으나 성도가 없어 죽어버린 ‘사데 교회’는 고대적 관점에서 비존재(Non-existence)입니다.
- **통찰**: 창조란 ‘없던 재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질서(혼돈) 속에 있던 것에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여 살게 한 것’입니다.

2.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운명을 결정하는 행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라고 하신 대목은 단순한 작명이 아닙니다. 저의 스승이신 장국원 박사님은 이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 **김춘수의 「꽃」:**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비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기능적 존재)’이 됩니다.
- **이름 = 기능:**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피조물이 우주라는 성전 시스템 안에서 어떤 목적(운명)을 가지고 가동될지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 가동(Launch)’ 선언입니다.

3. 하나님의 대리인: 아담의 ‘이름 짓기’가 갖는 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인간을 우주 시스템의 ‘로컬 관리자(Admin)’로 임명하신 사건입니다.

- **다스림의 본질:** 이름을 짓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제 기능(Function)을 다하도록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 **우리의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이 고유한

가치와 운명을 회복하도록 돋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4. 고대 근동 문헌이 증명하는 것 (수메르, 바빌론, 이집트)

월튼이 검토한 수많은 고대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창조’는 언제나 ‘사회적 질서의 확립’이나 ‘신의 거처(성전)의 마련’과 연결됩니다.

- 고대인들에게 ‘무(無)’는 물질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길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며, 다스리는 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창세기는 바로 그 무질서의 바다 위에 하나님이 ‘안식(통치)’하시기 위한 질서를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정리하며: 우리를 향한 ‘새 이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들의 ‘기능’과 ‘운명’을 재설정하신 재창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름만 살아있고 기능은 죽어버린 사데 교회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지금 살아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4.

창조는 물질의 탄생이 아니다?

창세기 1장의 ‘기능적’ 반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을 바꾼 존 월튼의 역작, 『창세기 1장의 잊어버린 세계』 제3장의 핵심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개념을 넘어, 창세기가 말하는 진짜 ‘창조’의 의미를 파헤쳐 봅니다.

1. ‘바라(Bara)’, 원자를 만드는 것인가 질서를 세우는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Bara)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를 우리는 보통 ‘없던 물질을 만들어내다’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존 월튼은 구약성경의 모든 용례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라’의 목적어 중 그 어디에도 ‘물질적 재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언제나 ‘기능’과 ‘질서’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물질적 탄생이 아니라

‘기능적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2. 물질의 기원보다 중요한 ‘기능의 시작’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덩어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주적 질서 안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믿었죠.

연극 무대를 상상해 보세요. 배우와 소품이 무대 위에 놓여 있다 고 해서 ‘연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이 오르고 배우들이 대사를 읊으며 극의 ‘기능’이 시작될 때 연극은 존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무대의 커튼을 열고, 각 피조물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우주라는 시스템을 가동(활성화)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3. 우주는 거대한 ‘성소’, 인간은 그곳의 ‘제사장’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기능을 활성화하셨을까요? 여기서 윌튼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우주적 성소의 건립’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우주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거주하시며 통치하시는 거대한 성전(Cosmic Temple)입니다.

창조의 6일은 성전 안에 기구를 배치하고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7일째의 ‘안식’은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성소의 보좌에 앉아 다스림을 시작하시는 사건입니다.

4. “다스리라”는 명령의 진짜 의미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통찰에 도달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라”는 명령과 시편에서 노래하는 “만물을 그 빌 아래 두셨다”는 선언은 모두 제사장적 용어입니다.

- 세상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 인간은 제사장입니다: 단순히 자연을 정복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기능’과 ‘질서’가 성소 안에서 온전히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제사장적 돌봄을 맡은 존재입니다.

[에필로그]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은 과학적 물질 기원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우주적 성전 봉헌식’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노동과 삶의 현장은 단순한 생존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기능을 유지하는 제사장적 직무의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제사’로 채워지고 있나요?

5.

태초(Bereshith)의 비밀:

빅뱅의 순간인가, 경영의 시작인가?

우리가 알던 ‘태초’는 잊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를 읽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거대한 폭발인 ‘빅뱅’의 찰나나 우주의 하드웨어가 짠하고 나타난 ‘시점’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학자 존 월튼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태초(베레시트)는 그런 점(Point)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Period)이다!”

성경이 말하는 ‘태초’의 진짜 의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어 용법을 보면 명확합니다. 옵기 8:7에서 옵의 인생 전반기를 ‘시작(레시트)’이라 부르고, 예레미야 28:1에서 시드기야 왕의 통치 초기 기간을 ‘태초’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 ‘태초’는 7일간의 창조 사역이 진행된 ‘초기 운영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1장 1절은 ‘사건’이 아니라 ‘경영 지침서’의 서문
이 통찰은 창세기를 읽는 눈을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태초가 7
일간의 기간을 의미한다면, 1장 1절은 그 이전의 물리적 창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장 전체를 요약하는 ‘표제어’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주 성전의 기능을 어떻게 세팅하셨을지, 그 초기 경영(태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라는 선언이죠.

12개의 마디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태초’를 첫 번째 섹션으로 놓으면, 창세기는 ‘11개’가 아니라 ‘12개’의 마디(톨레도트, 내력)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12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라는 마디에서 우주 성전의 전원을 켜셨고, 이후 ‘톨레도트’라는 마디들을 통해 인류 역사를 경영(Oikonomia)해 나가십니다.

베레시트의 ‘시작’에서 요한복음의 ‘영원’으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우주 성전 가동의 ‘운영 시작(Bereshith)’을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인 ‘엔 아르케’는 시간 이전의 ‘영원한 기원’을 선포합니다.

창세기가 “이제 7일 동안 우주를 경영한다!”는 첫 페이지라면, 요한복음은 그 시스템을 설계한 ‘로고스’께서 우주가 작동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증명합니다. 창세기의 ‘태초에’가 시간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치밀한 경영을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그 이면의 영원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과 맥락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월튼의 창세기 1장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

“혼돈과 공허”는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기능의 부재다

월튼은 창세기 1장 2절의 ‘토후(Tohu)’와 ‘보후(Bohu)’를 분석하며, 창조 이전의 상태가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능적 무(Non-functional)’ 상태였음을 증명합니다.

1. 토후(Tohu)의 진정한 의미: “목적 없음”

우리는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흔히 무질서한 물질의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튼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 **광야와 사막:** 신명기 32:10 등에서 ‘토후’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는 물질적으로 존재하지만, 사람이 거주하거나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질서와 목적’이 없는 땅입니다.
- **우상:** 사무엘상 12:21에서 우상은 ‘토후’라고 불립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된 물질적 실체는 있지만, 신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후’입니다.

- 결론: ‘토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Unproductive) 상태를 뜻합니다.

2. 보후(Bohu)의 의미: “비어 있음”

‘공허’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항상 ‘토후’와 짹을 이루어 나타납니다. 월튼은 이를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채워진 구성 요소 (Inhabitants)가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3. “좋지 못하다(Lo-Tob)”의 기능적 해석

월튼은 이 관점을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선언에 결정적으로 적용합니다.

- Tob(좋다)의 의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은 도덕적 완벽함이나 미적 아름다움보다는, 설계된 기능이 제대로 작동(Functioning well)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Lo-Tob(좋지 않다)의 의미: 아담이 혼자 있는 상태를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은 그의 성격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즉 ‘인류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는 기능’이 남자 혼자서는 결코 작동 할 수 없는 시스템(Non-functional system)이기 때문입니다.

- **해결책:** 따라서 하와가 ‘돕는 배필’로 등장하는 것은 사회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스템을 완성(Functional completion)하는 사건입니다.

4. 요약: 창조란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월튼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1. **시작점:**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있었을지 모르나, 기능적으로는 ‘토후’와 ‘보후’(기능 없음, 내용물 없음) 상태였다.
2. **창조 사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역할을 정하심으로써 기능을 부여하신다.
3. **목적지:** 기능이 하나씩 가동될 때마다 “좋다(Tob, 잘 작동 한다)”고 선언하시며, 인간 남녀가 합쳐져 인류의 기능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창조의 목적이 달성된다.

7.

창조의 첫 사흘: 존 월튼이 발견한 ‘기능적’ 질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해 온 창세기 1장의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세계적인 구약학자 존 월튼의 저서,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중 제5장 “창조의 첫 사흘은 기능에 관한 것이다”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창조를 ‘물질의 제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 월튼은 고대 근동의 문화를 근거로, 창조란 무질서한 상태에 ‘기능’과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첫 사흘 동안 어떤 기능이 세워졌을까요?

첫째 날: ‘시간’이라는 리듬의 시작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광학적인 ‘빛’의 입자를 찾으려 애쓰지만, 월튼은 본문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

르셨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첫날의 창조는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농경의 주기를 결정하는 ‘시간의 기능’을 우리 우주에 설치하신 사건입니다.

둘째 날: ‘날씨’라는 생존 시스템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져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눕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당황스럽지만, 고대인들에게 궁창은 비를 조절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존 월튼은 이 대목을 ‘날씨’의 기능이 확립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너무 많은 비는 홍수를, 너무 적은 비는 가뭄을 가져오죠. 하나님은 물의 질서를 잡으심으로써, 인간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상 시스템’이라는 기능을 작동시키신 겁니다.

셋째 날: ‘양식’이라는 생명의 에너지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구의 지각 변동이나 생물학적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씨를 맺고 열매를 내어 인간과 동물을 먹여 살리는 ‘양식 공급’

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첫 사흘은 시간, 날씨, 식량이라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대 핵심 기능’을 세팅(Setup)한 기간인 것입니다.

마무리: 진실은 ‘기능’에 있습니다

존 월튼이 이 책의 5장에서 강조하듯, 창세기는 과학적 발생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운영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이 약속하는 낮과 밤, 추위와 더위의 질서가 바로 이 기능들의 영속성을 증명하죠.

성경의 언급이 현대 과학과 다르다고 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How)’보다 훨씬 중요한 ‘왜(Why)’, 즉 창조의 목적과 기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새로운 차이 되었길 바랍니다.

8.

우주의 개업식: 창조의 언어와 존재의 비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의 첫 사흘인 시간, 날씨, 양식이라는 우주의 ‘운영 시스템’을 세팅하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적인 구약학자 존 월튼의 통찰을 통해 창조 4~6일의 비밀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월튼은 그의 저서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창세기 1장은 물질의 탄생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능의 시작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실제 일할 ‘주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 월튼은 4~6일을 ‘기능 수행자들의 배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인의 생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물질이 만들어져야 존재한다”고 믿지만, 고대인에게 존재한다는 건 “목적과 기능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텅 빈 공연장에 조명과 무대장치가 다 갖춰졌다고 해서 공연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연’이 존재하게 되는 것과 같죠. 창조 4~6일은 하나님이 우주라는 성전에 해와 달, 동물과 인간을 세우시고 공식적인 ‘임무’를 맡기시는 역사적인 개업식 현장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성경의 단어 선택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만드셨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사(Asah)’입니다. 존 월튼은 구약성경 전체를 전수 조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창조하다’는 뜻의 ‘바라(Bara)’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이며, 신기하게도 ‘무엇을 재료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물건 제조가 아니라 ‘질서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사’는 이미 있는 것을 목적에 맞게 ‘준비하고, 임명하

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4일째 광명체를 ‘아사’하셨다는 건, 하늘에 등불을 새로 빛으셨다는 뜻보다 이미 있는 광명체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직무’를 정식으로 발령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목수가 아니라, 만물에 이름을 주시고 기능을 부여하시는 ‘절대 주권자 왕’이십니다.

결국 창조는 우주라는 창고를 물건으로 채운 사건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일꾼들로 채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 중 한 인 우리 인간은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이어지는 2편에서 그 놀라운 정체성의 비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신화의 끝, 사명의 시작: 인간은 누구인가?

(피조물의 탈신화화 & 인간 창조와 아르케타입)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이 우주의 일꾼들에게 직무를 주시는 ‘아사’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일꾼들이 채우는 영역,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일꾼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5일과 6일, 바다와 땅의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 신화에서 바다 괴물이나 맹수들은 신조차 두려워하는 ‘혼돈의 세력’이었습니다. 창조란 곧 이런 괴물들과 싸워 이겨야만 가능한 전쟁이었죠. 하지만 창세기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특히 바다 괴물을 언급할 때 성경은 신화적인 전쟁 대신,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만드셨다’고만 말합니다.

존 월튼은 이것을 ‘탈신화화’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신화적인 공포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괴물로 불리던 존재들

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이제 자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는 축복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 인간입니다. 고대 신화들은 신들이 노동하기 귀찮아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상은 외모가 아니라 ‘통치 기능’입니다. 고대 왕들이 영토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 통치권을 선포하듯, 하나님은 우주라는 성전에 자신의 대리자인 인간을 두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원형(아르케 타입)’입니다. 흙에서 온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온 세상을 돌보는 거룩한 ‘직무’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며 그분의 안식과 통치에 동참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존 월튼이 말하는 명제 6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상을 우리를 위해 ‘좋게’ 작동하도록 설계하셨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분의 꿈을 펼치는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다

안녕하세요? 구약학자 존 월튼의 저서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제8명제에 담긴 ‘우주적 성전’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1. 창조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부여하는 것

우리는 흔히 성경의 창조를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물질적 제조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 창조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학교 건물을 짓는 것보다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진짜 학교의 탄생인 것과 같습니다. 이 기능적 창조의 정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2. 성전: 우주의 축소판, 우주: 확장된 성전

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 **에덴동산은 성전의 원형:** 에스겔의 환상 속 성전에서 강물이 흐르듯, 에덴의 물줄기는 온 세계로 생명을 전달하는 성전의 발원지였습니다.

- **요세푸스의 증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 기구들이 우주의 상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 성전의 ‘놋바다’는 혼돈을 다스리는 심연의 바다를,
 - ‘휘장’은 하늘의 궁창을,
 - 성소의 ‘등대’는 하늘의 빛광체(해, 달, 별)를 상징하죠.
- **놀라운 언어적 일치**: 창세기 1장의 ‘광명체’와 성막의 ‘등대’에 쓰인 단어가 일치한다는 사실은, 창조 기사가 사실상 ‘우주라는 거대한 성전의 건축 보고서’임을 보여줍니다.

3. 하나님은 왜 7일째에 쉬셨을까?

월튼은 ‘안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면 신이 그곳에 ‘입성(Enthronement)’하여 통치를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우주 성전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4. 이사야 66장이 선포하는 우주 성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사 66:1)

이 말씀은 우주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직설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사상은 신약으로 이어져,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좁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를 통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거룩한 일상

성전이 우주의 모형이고, 우주가 하나님의 확장된 성전이라면 우
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됩니다.

창조는 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 우주라는 성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이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일상은 더욱 거
룩하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11.

요세푸스가 목격한 성전: 우주의 축소판

도입: 성전, 그 이상의 의미

여러분, 성경 속 성전이 단순히 제사를 지내던 건물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존 월튼과 요세푸스, 그리고 톰 라이트의 시각을 따라가면 놀라운 사실이 드리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축소판’이자, 온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오늘, 그 신비로운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본론 1: 성전의 구조가 곧 우주의 지도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의 구조가 우주의 영역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을 상징합니다. 반면, 제사장과 백성이 머무는 ‘성소’와 ‘뜰’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과 바다를 의미하죠. 이 둘 사이를 잇는 ‘휘장’은 공기, 불, 물, 땅을 상징하는 색 실로 짜여, 가시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인 ‘궁창’을 나타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곧 우주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행위였

습니다.

본론 2: 창조의 ‘기능’을 담은 성물들

우리는 보통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만, 존 월튼은 창조의 관점에서 더 근원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 **일곱 금 촛대(등대):** 하늘에서 질서 있게 운행하는 행성들을 상징하며, 창조 첫째 날과 넷째 날 설치된 ‘시간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 **진설병 상의 12개 떡:** 하나님이 12달 내내 땅으로부터 먹 거리를 내게 하시는 ‘음식 공급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창조 셋째 날, 땅에서 채소가 나게 하신 그 기능이 성소의 떡상으로 형상화된 것이죠.
- **놋바다(물두명):** 세상을 둘러싼 근원적인 심연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그 혼돈의 물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본론 3: 반전의 피날레, 인간이라는 ‘살아있는 신상’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톰 라이트가 지적하듯이, 고대 근동에서 신전 건축의 마지막 정점은 그 신전의 주인인 ‘신상(Idol)’을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라는 거대한 성전을 완성하신 뒤, 돌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인간’을 그 성전의 중심인 에덴에 두셨습니다.

결론: 우리 삶이 성전이 되는 이유

이것은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우주 성전에서 그분의 통치를 대행하는 ‘살아있는 형상(Image)’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전이 우주의 모형이고 우주가 확장된 성전이라면,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공간이 곧 성소입니다. 창조 7일째, 하나님은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주 성전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무리

눈에 보이는 건물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 성전과 그분의 형상인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을 가장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

창세기 1장: 우주 성전의 탄생 (입당식)

도입: 창세기 1장을 읽는 새로운 시각

창세기 1장의 7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존 월튼은 이 7일이 단순히 물질이 만들어진 기간이 아니라, 고대 세계의 ‘성전 입당식(Inauguration)’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과 고대 근동에서 우주와 성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안식’은, 신이 자신의 성전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1: 건축과 입당, 그 결정적 차이

우리는 성전을 짓는 ‘물질적 단계’와 성전으로서 기능을 시작하는 ‘입당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7년 동안 돌을 깎고 백향목을 운반했습니다. 이것이 물질적 준비 단계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다 모였다고 해서 곧바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시체(Corpse)만 남았을 때 그를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듯이, 성전은 오직 입당식을 통해 그 존재 목적과 기능이 부여될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것입니다.

본론 2: 우주 성전의 기능을 세우는 7일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의 7일은 우주라는 성전의 기능을 정립하고 직무를 맡은 존재들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고대 입당식 기록들을 보면, 신전의 운명이 결정되고 각자의 역할이 선포될 때 비로소 성전이 존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역시 모든 물질적 준비가 끝난 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입당식을 통해 비로소 창조되었습니다. 즉, 창조란 단순한 물질의 제조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안식처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결론: 24시간의 ‘날’과 예배의 회복

따라서 창조의 ‘날(Yom)’을 억지로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대로 늘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7일은 우주 성전의 기능을 선포한 실제 24시간의 입당식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 보고서가 아

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주라는 성전의 보좌에 앉으셨음을 선포하고 매년 그 창조와 통치를 기념하던 예배의 노래(Liturgy)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7일을 통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보게 됩니다.

13.

창세기 1장, 과학과의 전쟁을 끝내는 '입당식'의 비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며 현대 과학과의 충돌 때 문에 고민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정말 6,000년인가, 아니면 수십억 년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하지만 존 월튼은 명제 10을 통해 우리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1. 창조는 ‘물질 제조’가 아니라 ‘기능적 입당식’입니다

창조의 7일은 건물을 짓는 공사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우주라는 성전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입당식 (Inauguration)’ 기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재료를 모으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그것이 성전으로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입당식’ 때였습니다. 시체(Corpse)가 몸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듯,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7일은 바로 그 기능을 부여하고 시작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2. 과학이 말하는 ‘긴 시간’은 ‘리허설’과 같습니다

월튼은 이를 ‘대학 캠퍼스’와 ‘연극’에 비유합니다.

- **리허설 단계:**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 배우들이 연습하고 조명을 맞추는 긴 시간입니다. 과학이 말하는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대는 바로 이 ‘리허설’과 같은 물질적 준비 단계입니다.
- **본 공연 단계:** 관객(인간)이 입장하고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7일간의 입당식은 바로 이 본 공연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7일을 수억 년으로 늘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24시간씩 7일 동안 거행된 우주적 입당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3. 죽음은 타락 전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통찰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월튼은 이것이 ‘인간의 죽음’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생태계의 순환(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먹는 과정)에는 이미 생물학적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아담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필멸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몸이 불멸이어서가 아니라, 에덴에 주어진 ‘생명나무’라는 해독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죄의 결과는 인간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부터 격리하여 인간 본래의 ‘죽을 운명’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성전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결국 창조의 완성은 물질이 다 만들어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배치되고 하나님이 안식(통치)을 시작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대리 통치자”라는 장엄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이제 과학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입당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4.

성경을 ‘진짜’ 문자 그대로 읽는 법

도입: “문자 그대로”的 진짜 의미

여러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나요? 많은 분이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액면가(Face-value)’입니다. 액면가 해석이란, 저자가 의도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자가 비유를 들었다면 비유로,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사로 읽는 것이 저자를 가장 존중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본론 1: ‘일치론’과 ‘축소주의’의 두 함정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첫째는 ‘일치론’입니다. 성경 구절 속에 현대 과학인 빅뱅이나 진화론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더 세련된 해석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축소주의(Reductionism)’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의 오류를 피하려고 “이건 그냥 신학적인 선언일 뿐이야”, “그저 문학적인 수사일 뿐이야”라며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둉뚱그려버리는 것이죠.

본론 2: 축소주의, 과연 정당한 해석일까?

저도 사실 이 ‘축소주의’의 유혹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과학적 충돌이 두려워 본문을 그저 ‘상징’으로만 처리하면 마음은 편해 지거든요. 하지만 존 월튼은 경고합니다. 본문을 단순히 신학적·문학적 틀로만 제한하는 것도, 고대 저자가 전하려 했던 풍성한 ‘액면가’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창세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본론 3: 창세기 1장의 진짜 ‘액면가’

진짜 액면가 해석은 본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의 눈으로 그 깊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창조는 물질의 탄생이 아니라 ‘기능과 질서의 부여’였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수사’를 넘어, 고대 세계관 속에서는 우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결론: 저자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듣기

우리는 성경에 현대 과학을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일치론), 불편

하다고 해서 본문의 내용을 상징으로만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축소주의). 저자가 전하려 했던 고대 세계의 인지적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려 했던 하나님의 진실함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읽는 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학을 성경에 입히고 있습니까?”

15.

🎬 창세기 1장을 바라보는 현대의 길들,

그리고 잊어버린 길

도입: 왜 우리는 아직도 창세기 1장에서 길을 잊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가 ‘물질’이 아닌 ‘기능’과 ‘성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간격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이 이론들은 왜 생겨났으며, 존 월튼은 왜 이 모든 이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까요? 오늘은 현대 해석들의 지형도를 그려보고, 성경 저자가 가리켰던 진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론 1: 과학과 성경을 일치시키려는 필사적인 노력들

먼저, 창세기의 ‘날(Day)’과 현대 과학의 ‘연대’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는 세 가지 주요 입장을 살펴봅시다.

- 첫째, 젊은 지구론(Young Earth)입니다. 성경의 6일을 문자 그대로의 24시간으로 믿고,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

으로 봅니다.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는 열정은 높지만, 월튼은 이들이 고대인의 ‘문자적 의도(기능)’가 아닌 현대인의 ‘문자적 편견(물질)’에 갇혀 있다고 비판합니다.

- 둘째, 늙은 지구론(Old Earth)의 ‘날-시대 이론(Day-Age)’입니다. 창세기의 하루를 수억 년의 지질학적 시대로 해석하여 현대 과학과 타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대 히브리인이 이해했던 ‘날’이라는 단어에 현대의 지질학을 억지로 주입하는 ‘시대착오적’ 해석이 될 위험이 큽니다.
- 셋째, 간격설(Gap Theory) 혹은 재창조론입니다. 창세기 1:1과 1:2 사이에 수십억 년의 간격이 있었고, 사탄의 타락으로 심판받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는 주장입니다. 과학적 연대 문제는 해결해 주는 듯 보이지만, 정작 성경 텍스트 자체에는 그런 간격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본론 2: 문학으로만 보려는 시도와 그 한계

과학과의 전쟁이 피곤해진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바로 ‘골격 가설(Framework Hypothesis)’입니다. 창세기 1장의 6일을 실제 시간이 아니라, 1-4일(빛-광명체), 2-5일(하늘-새),

3-6일(땅-동물) 식으로 배열된 아름다운 문학적 구조로만 보는 것이죠.

분명 창세기는 문학적으로 훌륭합니다. 하지만 월튼은 이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본문을 단순히 문학적 기교로만 취급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실제로 통치하기 위해 ‘입당’하신다는 그 장엄한 ‘신학적 실제’ (Theological Reality)’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축소주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론 3: 월튼의 일침 “성경 저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

월튼이 명제 12에서 던지는 가장 강력한 일침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와 첫 독자들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지질학적, 생물학적 연대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젊은 지구론자든 늙은 지구론자든, 그들은 모두 “창세기가 물질의 제조 공정을 설명한다”는 현대적 전제 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창조는 ‘없던 물질이 생기는 것’보다 ‘무질서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기능과 질서가 부여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던지지도 않은 질문에 답하

기 위해 성경을 고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 다시 ‘액면가’의 자리로

결국 월튼이 강조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우리 시대의 과학 전쟁터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고대 세계의 맥락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지질학적 연대를 논하는 책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분이 지금 우리 삶의 중심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과학의 눈이 아닌, ‘성전과 안식’이라는 고대 저자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천 년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16.

🎬 [팟캐스트 대본] 과학의 '조리법'과 성경의 '요리사'

1. 도입: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은 작아지는가?

“과학이 우주의 기원을 완벽하게 설명해낼수록, 하나님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다를 존 월튼의 명제 13이 여러분에게 아주 시원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월튼은 과학과 성경이 싸우는 이유가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 본론: 케이크를 만드는 두 가지 진실

“존 월튼은 아주 유명한 ‘케이크 비유’를 듭니다. 여기 갓 구워진 맛있는 케이크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 과학자는 이 케이크를 분석합니다. 열이 밀가루의 단백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베이킹파우더가 어떤 화학 반응으로 탄산가스를 내뿜어 빵을 부풀렸는지 ‘물질적 과정’을 설명하죠. 이 설명은 100% 사실입니다.
- 그런데 요리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이 케이크는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거야.’ 이 설명 역시

100%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케이크의 화학 반응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요리사의 존재와 목적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정교한 반응들은 요리사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아름다운 수단일 뿐입니다.”

3. 심화: 과학은 ‘목적’을 측정할 수 없다

“월튼은 이 차이를 ‘형이상학적(Metaphysical) 차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어떻게(How)’라는 영역에 머뭅니다.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측정하죠. 하지만 과학은 ‘왜(Why)’라는 목적론의 영역에는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과학이 조리법을 연구한다면, 성경은 요리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죠.”

4. 결론: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는 법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억지로 찾아내려 하거나(일치론), 반대로 과학이 무신론이라며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 우주의 신비를 더 많이 밝혀낼수록, 우리는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조리법’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감탄하면 됩니다.

성경을 과학적 데이터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을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목적을 들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17.

시계제조공을 넘어, 지탱하시는 하나님께로

1. 도입: 하나님은 ‘은퇴한 제작자’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시계제조공’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태엽을 감아놓고, 그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 채 멀리서 구경만 하는 존재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신학적으로는 ‘이신론(Deism)’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존 윌튼은 명제 14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은퇴한 제작자가 아니라고요.”

2. 본론: 정비공이 아닌 ‘지탱하시는 분’

“하나님은 단순히 기계가 고장 나면 나타나 고치는 정비공 같은 ‘유지자(Maintainer)’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가 존재의 근거를 잃지 않도록 밑에서 묵묵히, 그러나 강력하게 지탱하시는 분(Sustainer)입니다.

그분이 붙들고 계신 손을 잠시라도 떼시면, 우주는 그 즉시 모든 기능을 멈추고 혼돈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윌튼은 이를 ‘대학교 총장 비유’로 설명합니다. 총장이 모든 강의실을 다니며 참

견하지 않아도 학교가 잘 운영되는 건, 그가 세운 정교한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화나 자연의 법칙조차도 하나님 이 없는 무신론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탱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3. 심화: 몰트만의 통찰—언약에서 완성으로

“존 월튼은 여기서 현대 신학의 거장 위르겐 몰트만의 통찰을 빌려옵니다. 몰트만은 창조를 단순히 물질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과 맺으신 ‘언약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즉, 창조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진 질서를 회복하는 ‘구속’을 거쳐,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온전 해지는 ‘종말(새 창조)’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지금도 미래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 결론: 예배,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과거

의 기적을 추억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신론이 말하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불드시는 그분의 손길을 확인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창조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응답이어야 합니다.”

18.

“망원경이 찍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진”

1. 도입: 압도적인 우주 앞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 영상)

“최근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온 우주 사진을 보신 적 있나요? 수억 광년 떨어진 성운의 소용돌이와 보석처럼 박힌 은하들을 보면, 우리는 그 거대함과 정교함에 압도되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2. 질문: 정보는 있지만 대답은 없는 과학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사진 속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How)’ 생겼는지, 그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는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로 알려주지만, 결코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왜(Why)’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목적 말입니다.”

3. 핵심: 지적 설계를 넘어 ‘목적’으로 (명제 15의 통찰)

“존 월튼은 그의 책,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이 문제

에 대답을 제시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지적 설계’ 논쟁은 사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였다고 말이죠. 과학이 생명의 메커니즘을 100% 밝혀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질까요? 아닙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원래 ‘목적’이라는 가치를 측정할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신앙만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사용자님의 신앙고백: 정보보다 아름다운 가치

“저는 이번 장을 읽으며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임스 웨이 보여주는 현란한 정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라는 생명을 위해 지탱되고 있다는 ‘목적의 아름다움’입니다. 우주는 차가운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창조주의 뜨거운 의도가 담긴 거대한 성전입니다.”

5. 결론: 신앙의 눈으로 보는 세상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화려하고 거대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과학이 우주의 비밀을 더 많이 밝혀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지탱’하고 계신지 더 크게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망원경은 별을 보지만, 신앙

은 그 별을 만드신 분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숨 쉬고 있지
않을까요?” 우주가 거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임을 기억합시다.

 도킨스와 지적 설계, 그 너머의 길

1. 문제 제기: 도킨스가 지배한 세상

“한국 서점가에서 리처드 도킨스의 책은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는 과학의 이름으로 ‘신은 없다’고 단언하죠. 이에 맞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라는 방패를 들고 나섰습니다. 과학의 빈틈을 찾아내어 그곳에 하나님의 지문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2. 월튼의 날카로운 질문: 지적 설계의 함정

“하지만 존 월튼은 지적설계 지지자들에게 뜻밖의 경고를 던집니다. 지적 설계가 오히려 하나님을 ‘물질적 원인의 하나’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빈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과학이 그 빈틈을 메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틈새의 하나님(God of the Gaps)’ 논리입니다.”

3. 핵심 비판: 아래층에서 싸우지 마라

“월튼은 지적 설계가 ‘과학의 탈’을 쓰고 ‘과학적 데이터’로만 승부를 보려 한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본질적으로 목적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도킨스가 ‘과학적으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그의 무신론적 철학이듯, 우리 역시 과학적 데이터만으로 신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장소(Arena)를 옮겨야 합니다.”

4. 대안: 목적론적 회복

“월튼의 대안은 명쾌합니다. 지적 설계가 과학계에서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목적(Purpose)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는 ‘신학적 선언’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설명된다고 해서 설계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교한 메커니즘은 그 메커니즘을 지금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합니다.”

5. 결론: 도킨스에게 답하다

“도킨스는 ‘어떻게’를 설명하며 ‘왜’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내는 그 모든 화려한 ‘어떻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우주를 얼마나 신비롭게

‘지탱’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찬양의 도구일 뿐이라고 요.”

사람들은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제임스웹 같은 망원경을 대기권 밖으로 보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같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려고 수천년 전부터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20.

“창조는 마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1. 도입: 즉각적인 마법을 기대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전구가 켜지듯 0.1초 만에 우주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창조를 ‘즉각적인 마법’으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명령, 피아트(fiat)에는 우리가 놓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2. 핵심: 명령(fiat)과 과정(process)의 만남

“라틴어 피아트(fiat)는 ‘그렇게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존 월튼은 이 명령이 단번에 끝나는 결과가 아니라, 장구한 시간 동안 이어질 ‘과정(Process)’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빅뱅부터 별들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진화까지... 과학이 밝혀내는 그 기나긴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아주 정교한 ‘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건너뛰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 비유: 당신이 태어난 신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열 달 동안 세포가 나뉘고 장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 태어났습니다. 과학은 이 과정을 ‘발생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고백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야말로 하나님이 한 생명을 빚으시는 지극히 신실한 손길입니다. 우주의 탄생도 이와 같습니다.”

4. 메시지: 이분법의 감옥에서 나오기

“이제 ‘자연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이분법을 멈춰야 합니다. 과학이 원인을 밝혀낼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을 지탱(Sustaining)하고 계시는지 드러날 뿐입니다. 과학적 설명은 신적 활동을 가리는 장막이 아니라, 그 활동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고화질 렌즈입니다.”

5. 결론: 오늘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장엄한 fiat(명령)이 흐르고 있는 현장입니다. 기적 같은 한순간

뿐만 아니라, 지루해 보이는 ‘과정’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망원경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지만, 신앙은 그 장구한 세월을 견디며 우리를 기다려온 창조주의 사랑을 계산합니다. 오늘 그 신실한 과정을 신뢰하며 걷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1.

“창조주를 만나는 곳, 우주라는 성소”

1. 도입: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

안녕하세요? 우리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멀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구약학자 존 월튼은 우리에게 ‘우주적 성전’의 문을 열어줍니다. 창조는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입니다.

2. 육의 질문: 중력은 의로운가?

성경 육기 38장을 보면,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육에게 하나님이나타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느냐?’

현대 과학은 이 질문에 ‘중력 때문입니다’, ‘기상 현상입니다’라고 답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중력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의롭거나’ ‘사랑’이 가득한 성품을 가진 게 아닙니다. 중력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작동하는 물리적 질서일 뿐이죠.

3. 핵심: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Condescending Grace)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월튼은 말합니다. ‘비록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중력과 같은 일반 은총의 법칙을 유지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탱하신다.’ 중력이 우리를 땅에 붙들어 주고, 비가 내려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 정교한 ‘기능’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낮아지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주라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물리학적 방정식을 성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인내이며 사랑입니다.

4. 지혜와 안식: 질서에 나를 맞추는 용기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이 우주에 심어놓으신 이 거룩한 질서를 발견하고 나를 그 질서에 맞추는 것입니다.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작동시키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가 멈출 때, 비로소 우주적 성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능을 유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 안식의 본질입니다.

5. 결론: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선포

창세기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물질의 완벽함이 아니라 ‘기능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이 창조의 목적대로 작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로 바라봅시다. 과학의 메커니즘 뒤에 숨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합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융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든든히 지탱하시길 축복합니다.

22.



[1부] 과학의 한계와 '중립'의 품격

주제: 과학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가?

제목: “과학이 침묵할 때 비로소 들리는 창조의 목소리”

썸네일: “과학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도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창조를 믿는 신앙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경계선을 그려보려 합니다. 과학적 발견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진다고 느끼셨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과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오묘함은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흑백 TV와 현미경의 콜라보)

“월튼은 과학이 세상의 작동 원리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훌륭

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 도구의 특성상 ‘목적’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마치 흑백 TV와 같습니다. 흑백 TV는 화면 속 세상의 형태와 움직임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세상에 원래 존재하는 ‘색깔’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TV가 고장 나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또는 현미경으로 명화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감의 성분은 완벽히 분석하겠지만, 화가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 ‘의도’는 현미경 렌즈에 잡히지 않습니다. 과학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목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흑백 TV를 보면 ‘세상에 색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무리)

“결국 과학은 목적에 대해 ‘판별 불능’의 상태, 즉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과학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를 더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23.



주제: “기원 논쟁의 꽉 막힌 물길을 뚫는 8가지 열쇠”

썸네일: “기원 논쟁의 로그잼을 푸는 법”

(도입)

“여러분, 강물에 통나무들이 엉켜서 물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를 ‘로그잼(Logjam)’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이 그렇습니다. ‘무신론적 과학’과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신앙’이 서로 엉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꽉 막힌 통나무 더미를 풀어낼 8가지 원칙을 살펴봅니다.”

(핵심 내용: 8가지 진술의 4대 요약)

“월튼은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8가지 정교한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1. 성경의 제자리: 창세기는 물질의 원리를 푸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믿음의 책입니다.
2. 과학의 제자리: 경험과학은 물질의 구조만 다뤄야 합니다.

‘목적이 없다’는 철학적 결론을 내리는 순간, 과학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3. 중립의 힘: 과학이 중립을 지키면,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설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권리도 생겨납니다.
4. 정직한 관찰: 자연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질서(비가역적 복잡성)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이를 정치적 싸움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

“엉킨 통나무 더미에서 ‘중립’이라는 핵심 나무 하나만 빼내면, 진리의 강물은 다시 흐릅니다. 과학이 신학을 문제 삼지 않고, 신학이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성적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4.

[3부] 과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5대 선언

주제: 우리는 왜 지혜로운 과학자가 필요한가?

제목: “지식 전달을 넘어, 지혜로운 과학자를 키우는 법”

썸네일: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도입: 종합적 접근)

“명제 18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과학의 한계를 보았고, 엉킨 논쟁을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답할 차례입니다. 월튼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과학과 삶을 통합하는 5가지 실행 지침을 선포합니다.”

(핵심 내용: 5대 실행 가이드)

“월튼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1. 교사와 출판사: 과학 교과서에서 ‘목적론적 증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십시오.

2. 행정가: 과학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형이상학(철학/신학)을 토론하는 과정을 반드시 개설하십시오.
3. 학생: 여러분은 유능한 기술자를 넘어, 복잡한 세상을 판단 할 줄 아는 ‘철학적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4. 양 진영: 신양인도, 무신론자도 각자의 신념을 과학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5. 성경 존중: 성경을 과학책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마무리)

“물리와 화학은 우리 인생이라는 큰 나무의 ‘곁가지’입니다. 가지가 뿌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되, 삶의 진짜 의미는 창조주의 음성에서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

[상세 완역] “창세기의 잃어버린 세계” 에필로그

[제목: 성경의 권위와 지적 정직성을 위하여]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창세기 1장의 본질에 대한 신중한 재고(reconsideration)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본문에 대한 가장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읽기 방식이, 이 텍스트가 현대 과학이 아닌 ‘고대 문헌’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의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저자가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의도했던 바와 그의 청중이 분명하게 이해했을 내용은, 이 구절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창세기 1장에 대해 제안한 입장은 ‘우주 성전 봉헌 견해 (Cosmic Temple Inauguration View)’라고 명명될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은 이 관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포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부(Headquarters)입니다.

이 관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인들 역시 우주의 물질보다는 우주의 기능에 훨씬 더 조율되어 있었다는 제안입니다. 세상의 기능들은 그들에게 더 중요했고 더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구조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미’란 누가 그 일을 맡고 있으며 누가 그것을 작동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는) 물질적 기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기능적 기원(특히 인간을 위해 기능하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능적 기원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 본문은 물질적 기원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의 핵심 특징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가장 두드러지게는, “창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바라(bārā)’는 기능을 할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기록은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2절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 처음 사흘은 생명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인 시간, 날씨,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우주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영

역을 부여받는 기능 수행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 반복되는 언급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인간과 관련된) 기능성을 가리킵니다.
- 성전의 측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의 절정에서 분명해집니다. 안식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온 우주를 성전으로 봉헌하는 7일간의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유익을 위해 그 기능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이러한 읽기는 신학, 진화론, 그리고 지적 설계론에 대한 고려로 이어집니다. 만약 창세기 1장이 물질적 기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면, 그것은 물질적 기원에 대한 어떠한 메커니즘도 제공하지 않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 과학이 제안하는 바를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이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창세기 1장을 근거로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메커니즘에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 핵심은 과학이 실질적이라고 간주하는 무엇을 제안하든,

우리의 응답은 “좋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솜씨(handiwork)를 보는 데 도움을 준다”가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구성 요소 중 적어도 일부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물질적 기원의 메커니즘을 ‘목적론적 진화(Teleological Evolution)’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진화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지만, 진화 과정이 기원의 일부 측면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론적(teleological)’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 관점을 표준적인 신다윈주의(Neo-Darwinism)와 차별화합니다. 목적론은 이 과정이 ‘목적과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으로서 물질적 기원을 이해한다는 확신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연에서) 설계의 증거들이 발견되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관점이 주체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견고하며, 실제로 우리의 창조 신학을 강화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래의 문맥에 의해 지지되는 창세기 1장 읽기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현신이 가진 신학적 활력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1. 회의론자들과 우리의 신앙을 논할 때, 우리는 과학 토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들이 하는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에 관여하셨을 수 없다는 이유는 없다”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의 소위 갈등은 종종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사실, 이 갈등이 신앙의 영역에서 시작되기 전에 과학 쪽에서 먼저 조장되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2. 두 번째 이점은 창세기에 대한 ‘우주 성전 봉헌 견해’와 물질적 기원에 대한 ‘목적론적 진화 견해’를 견지함으로써, 신앙의 지속적인 마모(attrition)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불필요합니다.
3. 세 번째 이점은 우리가 공립 교육에 대한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지구 창조론이나 지적 설계론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의제를 밀어붙이기보다, 우리는 과학이 아닌 믿음의 문제인 ‘형이상학적 자연주의’가 진화론 교육과 뮤여서 가르쳐지지 않도록 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과학이 아닌 신념에 불과한 ‘비목적론(dysteleology)’을 교육 과정에 삽입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물

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립 교육은 진화론을 가르치되, 그 결점과 문제점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며 사례를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의 관심사는 과학자들에게 과학을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 결론이 옳거나 그르다고 결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이 진화론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접근하려고 시도했던 쟁점은, 창세기 기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신자가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학적 아이디어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적/신학적 관점에서 수용 불가능한 과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일부 과학자들이 채택한 형이상학적 함의들만이 수용 불가능한 것입니까? 진지한 과학자들이 거부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창세기 기록 자체입니까? 아니면 단지 일부 전통적인 해석들의 함의일 뿐입니까? 생물학적 진화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이기에, 우리는 이 관점이 신자에게 신학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타협하도록 요구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세부 사항 자체에는 타협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부적절하다고 입증된 지배적 패러다임을 정제하거나 수정하고, 심지어는 전면 검토하거나 폐기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

다. 이것이 과학적 탐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바에 대해 최선의 설명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진화의 어떤 측면들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야 할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성경의 신학적 입장과 여기서 제시된 창세기 1장의 해석을 증진함에 있어서, 생물학적 진화가 성경과 모순되는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일부 진화론자들이 성경과 모순되는 형이상학적 결론을 옹호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생물학적 진화의 발견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물학적 진화론을 홍보할 이유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성경과 신학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과 신학에 있어 여분(superfluous, 불필요하거나 별개인 것)일 뿐입니다. 빅뱅과 화석 기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관점은 신다원주의 진화론이라는 확고한 입장과 성경 및 견실한 신학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만들어진 늪(morass)을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파울러와 쿠블러에 의해 잘 설명되었습니다. “논쟁의 논쟁적인 성격으로 인해 판돈이 너무 높아져서, 한 학파에 유리하게 해결되는 것은 다른 학파에 파멸적인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과학계는 대

체로... 특정한 이론에 과학의 위신을 걸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자연주의 철학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창조론자들은... 동일한 이론의 허위성에 그들 종교의 진리성을 걸었는데, 이는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창조론 옹호자나 신다윈주의 옹호자 모두 사실과 관계없이 자기 쪽이 지거나 밀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두 진영 모두에게 과학 외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다윈주의 옹호자들은 물질적 기원에 대해 경험과학이 제안하는 바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목적론(dysteleology)을 마치 과학의 필수적인 귀결인 양 홍보하는 것만 중단하면 됩니다. 또한 신다윈주의에 결함이 없고 수정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라는 신학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창세기 1장에 대한 “문자적” 읽기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영어 단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나 이해가 반드시 본문에 대한 가장 충실한 읽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독자들이 창세기 1장에 대해 비유적이거나 단순히 문학적인 읽기로 물러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 책이 제안하는 읽기 방식이야말로 창세기 저자와 청중이 이해했을 바로 그 방식이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측 모두 그들의 완고한 적대감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럴드 런클이 그의 저서 “좋은 생각(Good Thinking)”에서 썼듯이: “자신의 신념을 시험해 보거나 반대 신념이 거친 성공적인 시험들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망각하는 것은 완고하고 독단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제안했을 때 널리 퍼진 경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론에 대한 인상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 단체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회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는 애송이 점성가에게 귀를 기울인다... 이 바보는 천문학 전체를 뒤집으려 한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가 지구가 아니라 태양에게 멈추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성경 자체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간주한다면 우리가 오만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도 무오한 해석자가 아니며, 우리는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우리의 해석을 재고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해석이 성경의 권위 자리에 서게 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전달하는 위험을 감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성이 실패하는 곳에서 믿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기

꺼이 이성을 구속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앙 안에서 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경 해석을 재고하게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본질적인 권위나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6.

[결산] 창조론 vs 진화론, 100년의 전쟁을 끝낼 '평화 선언문'

안녕하세요! 그동안 25편의 영상을 통해 존 월튼의 『창세기의 옳은 세상』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에필로그와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창조와 과학 사이에서 갈등해 왔을까요? 존 월튼은 그 ‘엉킨 실타래(Logjam)’를 풀 수 있는 놀라운 열쇠를 제시합니다.

1. 창세기는 ‘설계도’가 아니라 ‘임명장’이다

우리는 창조를 ‘물질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 창조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비유하자면:** 학교 건물을 짓는 것(물질 창조)보다, 그 건물을 ‘학교’라고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기능 창조)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창조의 핵심입니다.

- 결론: 창세기는 세상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다스리시는지 보여주는 통치 선언문입니다.

2.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부(Headquarters)’다

윌튼의 가장 멋진 통찰 중 하나는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성된 성전(우주)에 직접 입주(좌정)하셔서 경영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 우리가 밭을 딛고 사는 이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본부입니다.

3. 과학과 신앙: 싸움이 아닌 ‘각자의 역할’

윌튼은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 과학의 영역: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가?” (조리 법)
- 신앙의 영역: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왜 주관하시는가?” (주인의 의도) 과학이 ‘어떻게’를 설명할 때, 신앙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교한 ‘솜씨(Handiwork)’를 발견하면 됩니다

다. 이를 월튼은 ‘목적론적 진화’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4. 미래를 위한 3가지 제안 (평화 선언)

지루한 기원 논쟁을 끝내기 위해 월튼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한 길을 제시합니다.

1. **대화의 여유**: “하나님이 그 과학적 과정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2. **다음 세대 교육**: 아이들에게 신앙과 과학 중 하나를 선택이라고 강요하지 맙시다. 둘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3. **공립 교육의 종립**: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라고 우기 기보다, 과학의 이름으로 ‘무신론 철학’을 가르치지 말라고 정당하게 요구합시다.

에필로그를 마치며: “해석은 성경이 아니다”

월튼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특정한 해석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되, 성경의 본질적인 권위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 과학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 자체로 우뚝 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

님의 집이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25편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깊은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